

# 구약 잠언의 여성 ‘지혜’와 도덕경의 ‘도’(道)의 여성성 비교\*

김순영(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

## 1. 들어가는 말

이 논문은 구약 <잠언>의 ‘지혜’와 동양고전 <도덕경>의 핵심, ‘도’를 비교하는 연구다.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의 지혜문학과 동아시아 문화권에 깊은 영향을 끼친 중국 도가 문학의 만남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고대 이스라엘 지혜 정신의 대중적 성격을 지닌 잠언과 중국 사상 여명기인 춘추전국시대의 대표적 사상가 노자의 도덕경에 묘사된 도에 대한 학제간 융합이다. 이 연구 목적은 이분법적 사고와 도식을 넘어 인류의 보편적 지혜 유산의 공통 분모를 발견하고 재의미화하는 것이며, 진리와 또 다른 진리의 소통과 융합을 시도하는 것에 있다. 이 논의는 잠언에 제시된 만물의 시원으로서 신적이면서 인격적인 지혜의 동시성

---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B5A17050907)

과 도덕경에 제시된 우주의 근본 원리인 도를 비교하되 차이보다 유사성에 초점을 둘 것이다. 이는 태초보다 먼저 존재했던 완전한 ‘무엇’이자 어머니로서의 도와 하나님 창조의 동역자로서 지혜의 여성적 이미지 속에 드러난 우주적 진리의 겹침을 살피되 그 안에 내재한 여성성(femininity)을 통해 젠더 포괄적인 두 사상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확장하기 위함이다.

이 연구를 위해 구약의 잠언 본문과 도덕경 본문을 선별했다. 먼저 잠언 8장 22-31절은 구약 잠언의 여성 지혜 본문의 정점으로서 “가장 우아하고 정교한 시 중의 하나”로 알려졌다. 이 시는 수 세기에 걸쳐 고대 현자들은 물론 교부로부터 페미니스트와 생태학자에 이르기까지 독자들을 사로잡은 매우 독특하고 감동적인 구절이다.<sup>1</sup> 이 본문의 1인칭 화자로 인격화된 지혜는 아웨에 의해 창조되었으나 동시에 창조자로서 ‘그의 옆에서’ 마치 아내처럼 존재하면서 신적 기능을 수행한 초월적 존재로 묘사되었다. 그리고 이 본문과 연동되는 지혜 단락을 역시(1:20-33; 8:1-21; 참조, 3:19-20; 4:5-9; 7:4-5; 9:1-6; 31:10-31) 지혜를 여성으로 인격화하면서 지상적인 행복의 원천이자 후원자처럼 묘사하고 찬미한다. 무엇보다 여성 지혜와 함께 다룬 도덕경 본문은 1장, 6장, 25장, 51장, 61장이다. 이 본문들은 도를 하늘과 땅의 시원이자 완전한 무엇과 온갖 것의 어머니로서 여성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잠언에 나타난 고대 이스라엘의 지혜 개념을 중국 고전 도덕경에 나타난 도의 개념과 함께 읽는 공통의 이유가 있다. 첫째, 서구 여성주의 운동보다 오래된 동양적 사유의 원형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내용의 유사성이다. 둘째, 고대 이스라엘의 지혜 전통과 동아시아 사유 전통이 만나는 통섭의 과정으로서 서로 다른 배경에서 처음 태동했던 고

---

1 William P. Brown, “Proverbs 8:22-31”, *Interpretation* (2009): 286-288.

대 세계의 사유와 삶의 지혜가 그때와 다른 지금 여기로 도약하는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까지 잠언의 여성 지혜는 주로 가나안, 바벨론, 이집트 등의 주변 국가들의 지혜나 여신들과 비교 연구되었지만<sup>2</sup> 국내 연구 논문 중 중국 춘추전국시대 “민간신앙과 철학적 사과의 원천”<sup>3</sup>인 도가사상을 대표하는 도덕경의 ‘도’ 개념과 구약 잠언의 ‘지혜’에 대한 여성성 비교는 없다. 따라서 이 연구는 사회문화적 역사적 종교적 범위와 경계를 넘나드는 진리의 만남이라는 측면에서 유의미한 작업이다.

이 논제 전개를 위해 두 가지 전제를 둔다. 첫째, 지혜와 도의 여성성은 신화적이거나 민속학적인 배경을 지니고 있지만, 본문의 문학적 심미적 차원을 바탕으로 추출된 의미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둘째, 잠언은 히브리어 맛소라 본문에 근거하며, 선별한 도덕경 본문의 한문 원문과 자구 풀이는 높은 수준을 인정받는 동양 고전학자 오강남과 소준섭이 번역한 『도덕경』에 기초한다. 번역본 도덕경을 사용한 것이 못내 아쉽지만, 구약성서 연구자에게 중국 고전 번역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특히 도덕경은 어느 판본을 의존하느냐에 따라 도덕경 읽기 방식과 해석이 달라지는 매우 난해한 측면이 있다.<sup>4</sup> 그리고 논문 전개에 앞서 밝

2 예컨대 다음과 같은 연구들은 고대 근동 세계의 지혜와 잠언의 여성 지혜 개념을 비교한 내용들이 포함된 연구다. Allen Lenzi, “Proverbs 8:22-31: Three Perspectives on Its Composition,” *JBL* 125 (2006): 687-714; Leo Perdue, *Wisdom and Creation: The Theology of Wisdom Literature* (Nashville: Abingdon, 1994); Claudua V. Camp, *Wisdom and the Feminine in the Book of Proverbs* (Sheffield: Almond, 1985); Carol Newsome, “Woman and the Discourse of Patriarchal Wisdom: A Study of Proverbs,” Peggy L. Day, ed., *Gender and Difference in Ancient Israel* (Minneapolis, 1989). 이종근, “함무라비 법전과 잠언 8장의 연관성에 대한 고찰: 천상 회의를 중심으로”, 『구약논단』 23(1) (2017): 190-233을 보라.

3 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wiki/도가>, 2023. 5. 20. 접속).

4 도덕경은 본래 표의 문자 곧 뜻글자인 한자로 기록되어서 함축성이 깊기로 유명하여 난해한 측면이 있다. 이 때문에 국내 번역서들의 해석도 모두 제각각이고 그 견해들도 다양하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 고전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진행하면 좋았겠지만, 이 또한 어렵다.

혀들 점이 있다. 전혀 다른 배경에서 생산된 도덕경의 도와 구약 잠언 지혜의 여성적 이미지가 당시 남성중심주의를 반성하고 비판하는 철학적인 원리나 신앙적인 원리로서 실제 작동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그럼에도 두 사상의 여성적인 이미지가 남성 중심의 위계적인 권위주의를 비판하는 근원적 사유로서 ‘젠더 편향’을 해체하는 담론 생산에 공헌하고, 인류 보편적 삶을 위한 여성성 이해 확장에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따라서 이 논의가 고대와 현대를 잇는 여성성 이해와 유기체적인 우주관의 소통으로서 융합적 사고 확장을 위한 작은 디딤돌이길 기대한다.

## 2. 잠언 ‘지혜’와 도덕경의 ‘도’의 여성성 연구 사례

### 1) 잠언 지혜의 여성성에 대한 논의들

가장 최근 국내에 발표된 잠언 지혜 연구 중 윤희영은 8장 22-31절에 대한 상세한 주해에 초점을 두었고, 안근조는 여성 지혜에 대한 연구사와 함께 지혜 단락 중 세 개 단락을 선별하여(1:20-33; 8:1-36; 9:1-6) 정경적 관점과 수사적 기능, 신학적인 의미를 제시했다.<sup>5</sup> 이 두 논문에서 여성으로 의인화된 지혜가 주로 고대 근동 세계의 지혜나 여신들의 활동과 생산의 관점에서 비교 연구된 사실이 확인된다. 두 논문은 이미 여러 해석자에 의해 지혜의 시공간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창조 활동에 동역한 지혜의 원시성과 신격화 논의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대표적으로 제인 웹스터(Jane S. Webster)는 이미 20여 년 전에 잠언, 벤 시라의

5 윤희영, “잠언 8:22-31에 나타난 지혜와 창조의 역학적 관계”, 『구약논단』 75 (2020): 93-119; 안근조, “잠언의 의인화된 지혜 여성: 그 수사학적 기능과 신학적 의미”, 『구약논단』 79 (2021): 131-164를 보라.

집회서, 솔로몬의 지혜에 나타난 인격화된 지혜의 여성 이미지와 지혜와 결합하는 여신상과 관련해 다각적으로 살폈다.<sup>6</sup> 이처럼 잠언의 서론적인 1-9장에 묘사된 여성으로 인격화된 지혜는 비교문학적인 연구의 대상이었고, 실제 사람인지 그저 신성에 대한 의인화인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특히 잠언 8장의 의인화된 지혜는 단지 문학적인 장치로서가 아닌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신앙의 대상’으로<sup>7</sup>, “지혜가 마치 하나님의 여성 파트너인 것처럼”(8:30)<sup>8</sup> 하나님의 여성성을 대변하는 신성으로<sup>9</sup> 해석되었다.

이러한 지혜의 신적인 성격 때문에 잠언 8장의 여성 지혜는 고대 근동의 여신들과 견주어 상세히 비교 연구되기도 했다.<sup>10</sup> 대표적으로 지혜는 질서의 여신으로 알려진 이집트 여신 ‘마아트’와 현저한 유사성

6 Jane S. Webster, “Sophia: Engendering wisdom in Proverbs, Ben Sira, and the Wisdom of Solomon,”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78 (1998): 63-79.

7 Michael P. Barrett, “Wisdom: Person or Personification? Thoughts on Proverbs 8,” *Puritan Reformed Journal* 8, 1(2016): 5-12.

8 민영진, “히브리인들에게 여신이 있었는가?: 지혜, 세키나, 성령으로 대변되는 여성성”, 『기독교사상』 52(8) (2008): 118. 지혜가 부부처럼 하나님과 동거한다는 뚜렷한 표현은 외경 지혜서에서 발견된다(지혜서 8장 3절, 지혜는 하나님과 동거하는 것으로/그 출생과 고귀함을 선언한다/전능하신 주님께셔도 그녀를 사랑하셨다).

9 민영진, “히브리인들에게 여신이 있었는가?”, 118-127.

10 최근 잠언 8장에 묘사된 여성 지혜 정체성과 그 모델을 몇 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소개된 바 있다. 김세희, “잠언 8:22-31의 의인화된 지혜에 대한 새로운 고찰”, 2022년 구약학회 발표 논문, 1-2쪽을 참고하라. 김세희는 잠언 8장의 여성 지혜를 ‘바알 사이클’의 우가릿 여신 ‘아낏’과의 유사성에 무게를 둔다. 첫째, 여성 지혜가 고대 근동의 본문과 공통점을 지녔기 때문에 순수한 문학작품이다. 둘째, 여성 지혜는 야웨의 위격이다. 이것은 여성 지혜가 그 자체로서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관점이다. 셋째, 여성 지혜가 포로기 이후 실제 고위층 여성이다. 이것은 여성 지혜가 여성형이고, 매우 고귀한 존재로 여겨진다는 점이다. 넷째, 여성 지혜는 메소포타미아 현자 ‘우마누’이다. 이것은 잠언 8장 30절에 여성 지혜가 자신을 ‘아몬’(8:30)으로 표현한 단어의 기원 때문이다. 다섯째, 고대 근동의 여신들, 즉 아르테스, 아세라, 마아트, 또는 이시스가 잠언 여성 지혜의 모델이다. 이 밖에도 안근조, “잠언의 의인화된 지혜 여성: 그 수사학적 기능과 신학적 의미”, 134-140을 참고하라.

을 지닌 것으로 파악되었다.<sup>11</sup> 이집트에서 마아트는 생명의 원천이고 지혜의 근원이었다. 이 흐름에서 잠언의 여성 지혜가 여성 신학적인 관점에서 재해석되기도 했지만,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야웨 하나님은 인간 세계를 초월하고 성적인 구별을 뛰어넘는 분이기에 더 진전된 논의는 어려웠다. 지혜에 대한 여신 이론들이 있지만 구약성서와 정통 유대교 안에서 확립되지 않았다. 그러나 민영진은 기원전 400년부터 기원후 1100년까지 약 1500년 동안 유대교 신개념 속에 여성 신의 요소가 잠복했다는 주장을 괄목할 만한 종교 심리적 현상으로 보았다. 즉 유대교 신학에는 남성적인 신의 개념이 지배적이었지만, 여성성을 지닌 신성 신앙이 만연되고 있었다는 뜻이다. 이것은 유대교 신학에서 세 방향으로 발전하는데, 그중 하나가 하나님 자체에 내재한 여성성이다.<sup>12</sup>

이밖에 지혜를 뜻하는 히브리어 ‘호크마’(חֵכֶּמָה)의 문법적인 성을 반영하여 의인화된 여성 지혜로서 입증하는 이들도 있지만, 하나님을 문법으로 표현하는 언어의 한계 때문에 고대 족장사회에서 하나님은 남성 명사로 지칭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가부장제를 반영한 아버지 하나님을 강화하고 하나님 창조의 동역자로 여성 지혜를 고려할 기회를 놓치게 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잠언 8장에서 여성 지혜는 창조의 신비에 깃든 숨겨 좋은 ‘창조자’(יִצְחָק/아몬, 8:30)로서 야웨 ‘옆에서’(8:30) 창조 활동에 동역한 존재다. 즉 지혜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창조 활동에 참여한 신성을 겸비한 존재로 묘사된다(잠 8:22-

11 제임스 크렌쇼, 『구약 지혜문학의 이해』 (강성열 옮김),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132. 원제는 James L. Crenshaw, *Old Testament Wisdom*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8).

12 민영진, “히브리인들에게 여신이 있었는가?”, 121-126. 세 방향 중 둘은 성령론과 중보자론이다.

30). 더군다나 여성 지혜는 잠언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며 사람에게 생명력 넘치는 지식과 힘을 부여하는 존재로 인격화되어 곳곳에 등장한다(1:20-33; 8:1-21; 3:19-20; 4:5-9; 7:4-5; 9:1-6; 31:10-31).

## 2) 도덕경의 도(道)에 대한 여성성 논의들

도(道)의 여성성 연구는 중국학 전문가 조셉 니덤(Joseph Needham)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고대 모계 사회와 고대 중국의 원시 모성 위에 여신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신화를 언급했다.<sup>13</sup> 이후 도덕경에 묘사된 도의 여성성 연구는 동양고전 연구자들에 의해 산발적으로 진행되었다. 예컨대, 중국 고전 연구자 임채우는 “원시 도가의 여성주의 사상”을 제시하여 모성과 관련된 생산 능력과 함께 원시 종교 신앙에 여성주의가 담긴 것에 주목했다. 그는 원시 도가에서 세속의 남성중심주의에 대한 반성과 비판으로서 노장사상을 통해 동양 문화를 새롭게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이 있다고 보았다.<sup>14</sup> 고대 중국 사회에 여성이 주도권을 가진 여성가장제가 존재했음을 19세기 인류학에서도 밝힌 바 있지만, 이것은 모계 사회(matriarchy)와 다르며 여성가장제가 가족의 주도권만 가졌을 뿐 정치사회경제의 주도권은 남성에게 속했던 점에서 반대 견해도 공존한다.<sup>15</sup> 그러나 현실이 그렇더라도 도는 당시 철벽처럼 놓인 남성 중심의 가부장 문화에 충격을 가하여 변화와 새로움을 상상하게 만드는 희망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무엇보다 도덕경의 저자로 알려진 노자는 당시 일반적으로 사람

13 조셉 니덤은(1900-1995) 케임브리지 대학교 교수였고, 그의 책 《중국의 과학과 문명》은 비교철학과 중국학에서 중요하게 다뤄진다. 김영규, “노자(老子)의 여성성(女性性) 은유에 대한 철학적 분석”, 「신학전망」 175 (2011): 187-215을 보라.

14 임채우, “원시 도가의 여성주의 사상”, 「도교문화연구」18 (2003): 181-210. 이와 관련한 비슷한 연구는 이권, “노자의 여성성”, 「한국여성철학」 장간호 (2001): 31-52를 참고하라.

15 김영규, “노자(老子)의 여성성(女性性) 은유”, 193.

에게만 사용된 남녀 또는 음양의 일반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왜냐하면 남녀는 오직 인류에만 해당하고 음양은 보편적이고 추상적이면서 순수 자연 현상과 관련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자는 동물까지 포괄하는 특수한 여성성으로서 빈모(牝牡), 자웅(雌雄) 개념 즉 암컷과 수컷 개념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는 ‘빈모’와 ‘자웅’이 동물 범주를 벗어나 인간과 만물 모두에게 확장한다는 이유에서다.<sup>16</sup> 이 지점에서 보편적이고 구체적인 인간사회뿐만 아니라 사회와 자연 세계를 향한 관심이 남달랐던 노자 사상의 핵심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상의 고리들은 도교 문학에 나타난 생태 여성주의 연구에서도 드러난다. 즉 도는 남녀 차별을 반대하고 자연과 인간의 통합을 이름으로써 강함과 단단함을 이기는 지혜의 원천이었다. 더군다나 도교 문학에서 여성은 세계를 지배하는 우두머리로 묘사되는데, 도교의 여선(女仙)들이 정사에 참여하는 지도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그려졌다.<sup>17</sup> 물론 노자의 여성주의적인 사상이 당시 제자백가 시대의 철학적인 이론으로 존재했을 뿐 현실 세계에서 여성의 지위를 남성과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지 않았다는 평가를 유념해야 하지만, 도의 여성성 개념은 페미니즘의 대안으로 다양하게 모색되었다.<sup>18</sup> 이러한 흐름은 도 개념이 당시 중국 사상 변화의 기폭제였음을 제시하듯 “도덕경을 여성운동의 성서로”<sup>19</sup> 삼아도 좋겠다는 말이 나올 만큼 도의 여성성은

16 김영규, “노자(老子)의 여성성(女性性) 은유”, 193. 도덕경 6장의 ‘신비의 여인’(玄牝/현빈)과 각주 14번 참고하라.

17 강민경, “도교 문학에 나타난 생태 여성주의”, 『도교문화연구』 47 (2017): 139-165.

18 김중순, “노자(노자)에 있어서 도(道)의 절대성과 여성성”, 『젠더와 문화』 2권2호 (2009): 31-55; 이종위, “도덕경에 나타나는 여성성의 생명력과 특징들”, 『생명연구』 32집 (2014): 59-88; 김갑수, “도가사상의 페미니즘적 전망”, 『시대와 철학』 18권2호 (2007): 7-47; 정세근, “여성주의와 노자철학”, 『대동철학』 66호 (2014): 183-203.

19 노자, 『도덕경』 (오강남 옮김), (서울: 현암사, 2015), 45.



이미 상당 부분 진척된 셈이다.

### 3. 잠언의 ‘지혜’와 도덕경의 ‘도’ 비교는 왜 가능한가?

#### 1) 구성의 유사성과 집단지성의 결과물

구약 잠언은 고대 이스라엘의 지혜를 농축하고 집약한 문장들의 선집이다. <잠언>은 속담이나 격언 형태의 가장 짧은 문장으로서 장구한 세월 속에서 숙성된 삶의 지혜다. 31장으로 구성된 잠언 상당 부분이 솔로몬 이름과 연결되고(1:1; 10:1-22:16; 25:1-29:27), 표제는 솔로몬을 책 전체의 책임 있는 사람으로 언급하여(1:1) 솔로몬 저작으로 주목받게 했다. 그러나 잠언은 각기 다른 시대를 살았던 다양한 저자와 편집자들이 생산한 지혜 선집이다(22:17; 24:23; 25:1; 30:1; 31:1). 특히 잠언 1-9장과 31장 10-31절은 크리스틴 로이 요더(Christine Roy Yoder)에 따르면 아람어 형태와 어휘를 반영하는 후기 히브리어로 주장되는 본문이기도 하다.<sup>20</sup> 따라서 잠언은 오랜 세월에 걸쳐 수집되고 전승된 지혜 교훈으로서 시공간적인 어느 한 시점을 뛰어넘는다. 그렇게 잠언은 고대 이스라엘 지혜자들이 만들고 민간이 유포하고 왕실 서기관에 의해 필사되고 편집된 ‘집단지성’의 힘으로 완결된 셈이다.

도덕경도 마찬가지다. 도덕경은 기원전 6-5세기 노자가 기록한 5천자 남짓한 분량의 작은 책으로 알려졌고, 81장으로 구성된 짤막한 글들의 모음집이다. 무엇보다 도덕경은 서구사회로부터 비상한 관심을 얻었다.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번역되고 출판된 책이며, 번역서 발행

---

20 Christine Roy Yoder, *Wisdom as a Woman of Substance: A Socioeconomic Reading of Proverbs 1-9 and 31:10-31* (Berlin: de Gruyter, 2001).

부수가 가장 많은 명저로 인정받는다.<sup>21</sup> 오강남은 도덕경을 도(道)와 덕(德)에 대한 경전이라고 정의했고, 우주의 근본 원리로서 ‘도’의 흐름을 체득하고 참다운 삶으로 구현하는 ‘덕’에 관한 것이라고 요약한다. 또한 그는 도덕경의 사상이 동아시아 3국(한국, 중국, 일본)의 종교, 철학, 예술, 정치의 밑바닥에 면면히 흐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자의 사상은 우리 생활의 내면을 움직이고 있다고 평가했다.<sup>22</sup> 한편 소준섭은 노자의 도덕경을 천년의 사상이며 삶의 지혜이고 잠언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인간과 사회, 우주의 근본과 원칙을 궁구한 가장 치열한 사유와 통찰의 산물로 간주했고, 『논어』가 공자와 그의 제자들에 의해 만들어졌듯 도덕경 역시 노자와 그 제자들의 집단지성으로 완성되었다고 본다.<sup>23</sup> 따라서 동아시아 사상의 원류로 알려진 노자 사상은 구약의 잠언처럼 보편적 진리로서 특정 시대를 뛰어넘어 삶의 진실로서 소통된 지혜 교훈이다. 이러한 점에서 도와 지혜는 시공간을 넘나드는 삶의 진리이자 진실을 다룬 책이다.

## 2) 형식, 문체, 내용의 유사성

잠언과 도덕경은 문학적인 형식 측면에서 비슷하다. 잠언이 간결하고 함축적인 히브리 시의 예술성을 자랑하는 것처럼, 도덕경 역시 마찬가지다. 노자의 탁월한 언어는 정갈하고 꾸밈없이 단아한 아름다움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소준섭은 도덕경의 다양한 수사 방식이 대구, 반문, 설문, 빼어난 비유로 유려하게 운용되고 있고, 글의 정확성뿐

21 도덕경이 중국 고전 중에서 주석서가 가장 많기로 유명하고, 영어로 100종 이상의 번역서가 출판될 정도라고 하니 위대한 작품 중 하나인 것은 틀림없다.

22 노자, 『도덕경』 오강남 옮김, 7-8.

23 노자, 『도덕경』 소준섭 옮김 (서울: 현대지성, 2022), 7, 9.

만 아니라 생동감이 설득력을 배가시킨다고 극찬했다.<sup>24</sup> 구약 잠언은 가장 짧은 문장으로 많은 것을 말하는 히브리 시의 정교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지혜 선집으로서 삶의 ‘길’(道)을 묻고 배우는 삶의 기술이며 예술이다.

그러면 잠언과 도덕경의 내용적인 유사성은 무엇인가? 둘 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으로서 삶에 대한 실용적 측면을 지녔고, 동시에 사색적 성격이 강하다. 소준섭은 도덕경을 자기과시 수단의 변질된 지식이 아니라 진정한 지혜를 추천하는 책이라고 소개했다. 즉 진정한 지혜는 인위(人爲)와 꾸밈을 버리고 자연과 소박함으로 복귀한다는 뜻이다.<sup>25</sup> 그리고 ‘도’는 우주의 궁극실재(ultimate reality) 또는 근본 원리(principle)이며, ‘덕’은 도가 인간과 사물 속에서 자연스럽게 구현될 때 얻어지는 힘을 뜻한다.<sup>26</sup> 이러한 도와 덕의 관계는 잠언의 전체적인 교훈에서도 면면히 드러나 있다. 지혜는 고대 이스라엘 사람에게 우주 만물 속에 깃든 일정한 질서와 원칙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에서 펼쳐지는 자연과 일상의 온갖 활동들, 삶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은 지혜자들의 탐구 대상이었다. 예컨대, 지혜자들은 밭에 씨를 뿌리고, 살아갈 집을 짓고, 공부하며 합리적인 사고를 훈련하는 등 인간의 모든 일상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동식물을 관찰하며 얻은 지혜를 후대에 전달했다. 특히 8장이 포함된 1-9장에서 인격화된 지혜는 전인적인 인간과 대면하기를 바라고 삶의 모든 감각을 통해 인간을 일깨우길 원한다. 그런 지혜는 우주 질서의 근원으로, 신과 가장 가까운 존재로, 태고성과 영원성을 지닌 존재로 인식되었다(8:22-31). 따라서 지혜와 도는 고대

---

24 윗글, 10.

25 노자, 『도덕경』 소준섭 풀이, 7.

26 노자, 『도덕경』 오강남 풀이, 8; 노자, 『도덕경』 소준섭 풀이, 9.

인들에게 우주의 실재이며, 사람 사는 땅에서 사람과 함께 호흡하는 존재이자 우주와 삶의 원리다.

#### 4. 우주의 근원과 삶의 원리로서 지혜와 도

##### 1) 만물의 시원과 영원으로서는 지혜(חָכְמָה)와 도(道)

잠언 8장 22-31절은 여성 지혜의 시원에 대해 묘사한다. 지혜는 창조된 존재지만 동시에 창조자로서 영원성을 지닌 인격적이고 신적인 존재로서의 상징성이 강하다. 부르스 왈키(Bruce K. Waltke)는 이 단락을 고도의 상상력이 넘쳐나는 비유적인 시라고 정의했다.<sup>27</sup> 롤란드 머피(Roland E. Murphy)는 지혜와 야웨의 관계가 불가사의한 방식으로 묘사되었다고 표현했다.<sup>28</sup> 이 시의 특징은 인격화된 지혜가 1인칭 직접 화법으로 자신을 묘사한 것에 있다. 지혜는 ‘나-지혜’(אֲנִי-חָכְמָה/아니-호크마)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8:12) 지혜의 원시적인 태고성과 초월성을 몇 개 단어로 드러낸다. 이를테면 ‘태초’(רֵאשִׁית/레쉬트)를 비롯해 ‘원시’(קֶדֶם/케뎀), ‘영원부터’(מֵעוֹלָם/메올람)라는 말이 대표적이다. 이 단락에서 지혜의 특징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지혜는 만물보다 먼저 생겨난 존재이면서 야웨를 돕는 창조자다.

27 Bruce K. Waltke, *The Book of Proverbs: chapters 1-15*,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2004), 407.

28 롤란드 E. 머피, 『잠언』 박문재 옮김, Word Biblical Commentary 22 (서울: 솔로몬, 2001), 108. 원저는 Roland E. Murphy, *Proverbs*, Word Biblical Commentary: Vol. 22 (Grand Rapids: Zondervan, 1998).

잠언 8장 22-31절<sup>29</sup>

יְהוָה קָנְנִי רֵאשִׁית דְּרָכָו	8:22a	야웨가 그의 일을 시작하실 때 나를 가지셨다
קָדָם מִפְּעֻלְיוֹ מְאֹד	b	태곳적 그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부터.
מֵעוֹלָם נִסְכָּתִי	23a	영원부터 나는 생겨났다
מֵרֵאשִׁית מִקְדָּמֵי-אָרֶץ	b	처음부터 땅이 형성되기 전부터.
בְּאִין-תְּהוֹמוֹת חוֹלְלָתִי	24a	원시의 바다가 없을 때 나는 태어났다
בְּאִין מַעֲיֵנוֹת נִכְבְּדֵי-מַיִם	b	물로 충만한 샘들이 없을 때
בְּטָרָם הָרִים הִטְבְּעוּ	25a	아직 산들이 형성되기 전에.
לִפְנֵי גְבְעוֹת חוֹלְלָתִי	b	언덕이 있기 전에 나는 태어났다.
עַד-לֹא עָשָׂה אָרֶץ וְחוֹצוֹת	26a	그가 땅과 들판들을 만드시기 전에
וְרֵאשִׁית עֲפָרוֹת תְּבַל	b	세상 진토의 근원을 만드시기 전에. <sup>30</sup>
בְּחִינּוֹ שָׁמַיִם שָׁם אָנִי	27a	그가 하늘을 펼치실 때 내가 거기 있었다.
בְּחֻקּוֹ חוֹגַ עַל-פְּנֵי תְּהוֹם	b	그가 원시의 바다 위에 수평선을 아로 새기실 때
בְּאַמְצוֹ שִׁחְקִים מִמְּעַל	28a	그가 위의 구름을 견고하게 하실 때
בְּעִזּוֹ עֵינֹת תְּהוֹם	b	원시 바다의 샘들을 힘 있게 하실 때
בְּשׂוּמוֹ לַיִם חֻקּוֹ	29a	그가 그 바다의 한계를 정하실 때
וּמַיִם לֹא יַעֲבֹרוּ-בָּיו	b	그는 자기의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셨다.
בְּחֻקּוֹ מוֹסְרֵי אָרֶץ	c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וְאַהֲרָה אֶצְלוֹ אָמוֹן	30a	나는 그의 옆에 있는 창조자였고,

29 마소라 본문 시행 배열을 고려한 연구자의 번역이다. 이 단락은 8장 전체에서 매우 독특하고, 독립적인 단락이다. 첫 단락은(8:1-21) 지혜 사랑을 촉구하는 목소리이고, 가운데 부분(8:22-31)을 제외한 마지막 셋째 단락은(8:32-36) '아들들아'로 시작하는 잠언의 형식적 전형성을 통해 지혜 추구를 촉구하는 부모(또는 교사)의 목소리다. 잠언 8:22-31의 번역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김정우, "잠언 8장 22-31절에 나타난 지혜의 성격과 창조에 있어서 그의 역할에 대한 번역적 고찰", 『성서원문연구』 24 (2009): 7-23을 참고하라.

30 히브리 시행 첫 소절의 '그가 만드시기 전에'를 뜻하는 '아드-로 아싸'(עָשָׂה)가 생략되었다. 이는 자주 반복되는 시행을 생략하는 히브리 시의 문학적 관습이다.

- וְאֶהְיָ שְׂשַׁעִים יוֹם יוֹם      b 나는 날마다 황홀감에 젖었다.  
 מְשַׁחֶקֶת לְפָנָיו בְּכָל־עַתָּה      c 항상 그의 앞에서 행복했다.  
 מְשַׁחֶקֶת בְּחֶבְלֵי אֲרָצוֹ      31a 그의 땅, 그의 세계에서 즐거워했다.  
 וְשִׂשְׁעֵי אֶת־בְּנֵי אֲדָם      b 인류와 함께 나의 황홀감에 젖어.

(1) 잠언 지혜의 동시성 또는 이중성-하나님과의 관계에서

① 지혜, 가장 먼저 생겨난 존재

여성 지혜는 자신의 이중적 성격을 제시한다. 지혜는 ‘맨 처음’(רֵאשִׁית/레쉬트) 창조된 존재다(22-25절). 지혜는 야웨가 창조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태곳적 시간에, ‘영원’에서 생겨났다(23절). ‘깊음’(תְּהוֹמוֹת/테호모트),<sup>31</sup> 즉 원시의 바다도 없을 때였다. 샘들도 없고, 산들이 모양을 갖추기 전에, 언덕들이 생겨나기 전에, 야웨가 땅의 티끌을 만들기 전에 태어났다(24-26절). 한마디로 지혜는 만물보다 가장 먼저 태어난 존재로서 “세상의 원리이자 세상이 창조된 밑그림”<sup>32</sup>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표명은 야웨가 ‘나를 가지셨다’(22절) 또는 ‘내가 태어났다’(24절)라는 표현 때문에 야웨와 지혜 사이에 혼인과 출생이라는 모호하고 복합적인 이미지를 생산한다. 맨 처음 ‘그가 나를 가지셨다’(יָקַם/카니, 22절)는 말에서, ‘카나’(קָנָה) 동사는 돈을 주고 물건이나 땅이나 노예를 ‘사다’ 또는 ‘획득하다’(창 33:19; 47:20), 아내로 맞이한다는 뜻으로(룻 4:10)<sup>33</sup> 다양하게 활용되었다. 이것은 번역본마다 여러 의미의 가

31 고대 근동의 우주론에서 ‘테흠’은 혼돈의 괴물과 연결되기도 하지만, ‘깊음’ 즉 ‘태고의 심연’(창 1:2; 잠 3:20; 욥 38:7; 시 104:6)으로서 땅과 하늘이 자리를 잡기 전에 온 세상을 뒤덮은 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김정우, “잠언 8장 22-31절에 나타난 지혜의 성격”, 16-17을 참고하라.

32 Duane A. Garrett, *Proverbs Ecclesiastes Song of Songs*, The New American Commentary (Nashville: Broadman Press, 1994), 109.

33 HALOT 7553.

능성을 열어놓는다.<sup>34</sup> 그럼에도 현재 문맥에서 지혜는 야웨의 창조물이면서 다른 창조물보다 먼저 태어나 엄격히 구별된 존재로서 그 위치성을 확보한다.

더군다나 지혜는 창조된 존재이면서 창조자로서 기능적인 우월성을 지녔다. “창조자”(개역개정)로 번역된 ‘아몬’(אִמּוֹן)의 사전적 의미는 숙련되고 솜씨 좋은 ‘장인’(artisan)을 뜻한다(NIV, the craftsman; NRS, a master worker). 즉 ‘아몬’은 예술적이고 창조적인 능력을 갖춘 존재다. 고대 지혜자나 시인들이 야웨가 ‘지혜로’ 땅을 견고하게, 명철로 하늘을 견고하게 세우셨다고 설파하고 노래했듯(잠 3:19; 시 104:5, 24), 지혜 없이 창조는 없다. 그렇게 지혜의 기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보다 앞선다. 따라서 지혜는 영원의 존재이며 다른 무엇과 비교 불가한 “유전적 우월성(genetic primacy)”<sup>35</sup>을 지닌 존재다.

## ② 지혜, 야웨 ‘그 옆에’ 있는 창조자이자 동역자

무엇보다 ‘아몬’은 구약에서 이곳 말고 단지 두 번 사용된 희귀한 단어다.<sup>36</sup> 흥미롭게 칠십인역은 ‘아몬’을 ‘혼인 맺은 여자’(ἀρμόζουσα)<sup>37</sup>,

34 현대 역본들이 이것을 반영하고 있다. The LORD created me”(NRS, TNK); The LORD brought me forth(NIV). 여호와께서… 나를 가지셨으며(개역개정); 주님께서… 나를 데리고 계셨다(새번역); 나를 지으셨다(천주교 성경). 문자적으로 ‘야웨가 나를 가지셨다’(יְיָ יָרָאֵנִי/야웨 카나니)는 말은 논쟁적이다. 소유(개역개정, NAS) 또는 생산의 관점(NIV)이 번역에 적용되었다. 반면에 창조와 관련된 의미로도 사용된다(신 32:6; 시 139:13). 따라서 ‘창조했다’는 것은 전치사구 ‘태초에’(בְּרֵאשִׁית/베레쉬트)를 떠올리는 ‘베쉬트’(רֵאשִׁית) 사용을 고려하면 자연스럽다. 그러나 24절 ‘내가 태어났다’(יָחַלְתִּי/홀랄티)는 동사와 호응 관계를 고려하면 ‘나를 가지셨다’는 번역도 문맥과 어울린다.

35 Brown, “Proverbs 8:2-31”, 286. “유전적 우월성(genetic primacy)”이라는 말은 윌리엄 브라운의 표현을 빌린 것이다.

36 HALOT 553. 구약에서 고유명사(므낫세 왕의 아들 아몬, 왕하 21:18-19; 대하 18:25; 33:23 등) 아닌 일반명사로서 장인, 또는 기능공을 뜻하는 말로 두 번 사용되었다(렘 52:15).

37 이 단어는 결혼하다 또는 약혼하다를 뜻하는 ‘하르모조’(ἀρμόζω) 동사의 여성 분사 단수

곧 아웨와 혼인으로 연합된 여자를 상징하도록 지혜를 아웨 옆에 있는 아내처럼 표현했다. 이어지는 시행 문맥을 고려하면 여성 파트너로서의 이미지는 더 강화된다. 지혜가 이렇게 말한다. 나는 ‘그의 옆에 있는 창조자이며’, 날마다 황홀감에 젖어 행복했다고 한다(8:30). 이러한 표현은 신화에 등장하는 여신 이미지를 상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 신앙에 여신 개념이 없기 때문인지 ‘아몬’이 ‘막역한 친구’(a confidant, TNK) 정도로 번역되기도 했다. 말하자면 지혜는 누군가의 ‘아내’처럼, 속속들이 모든 것을 나누는 ‘친구’처럼 아웨와 친밀한 존재다. 이렇게 지혜는 아웨 옆에 있는 ‘아내’이자 ‘막역한 친구’이자 창조를 돕는 ‘장인’ 즉 ‘창조자’로서 창조 활동에 동역한 아웨의 신성한 파트너 자리에 있다.

더군다나 지혜는 아웨가 우주 질서를 수립하실 때 아웨 ‘그의 옆에’(30a절) 있었다. 이것은 창조자 하나님과 지혜 사이의 질적 차이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게 한다. 한마디로 지혜는 아웨에 의해 창조되었으나 창조의 동역자다. 말 자체는 모순이지만, 여성 지혜의 이중적인 정체성을 보여주는 독특하고 오묘한 표현이다. 지혜가 아웨 ‘그의 옆에’(אֶלֶּי / 에출로) 있다. 여기서 ‘옆에’(אֶלֶּי / 에첼)라는 말은 하나님이 에덴동산에서 아담에게 그의 ‘동등한 상대’(בְּנֵי / 네젠)로서 ‘돕는 자’(עֹזֵר / 에제르) 여자를 주셨던(창 2:18, 20) 때를 상상하게 한다. 왜냐하면 여자가 남자의 동등한 상대로서 돕는 자 곧 동역자의 위치성을 갖는 것처럼, 지혜는 아웨 ‘그의 옆에’ 있는 ‘창조자’(아몬)였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물론 명시적으로 ‘돕는 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능적 측면에서 지혜는 뛰어난 예술적 기질을 발휘하고 관계적 측면에서는 아웨 ‘옆

---

형이다. 30절 첫 소절, ‘나는 그의 옆에 있는 창조자였다’(וְאֵתֵּי אֶלֶּי אֲמֹן)를 칠십인 역은, ‘나는 그와 혼인으로 결합한 여자다’(ἡμῖν παρ’ αὐτῷ ἀρμολύουσα)라고 번역했다(능동형).



에서’(에첼) 유별난 친밀성을 나누는 ‘돕는 자’(에제르)를 상상해 볼 수 있다.<sup>38</sup> 따라서 “지혜는 분리된 관찰자가 아니다.”<sup>39</sup> 여성 지혜는 창조의 모든 국면에서 야웨와 함께한 야웨의 동역자다.

### ③ 지혜, 인류와 함께하는 불멸의 동역자

지혜의 이중적 역할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적 측면만이 아니라 인류와의 관계성에서도 그 친밀성이 발현된다. 지혜는 세상에 거주하는 인류와 교류하며 즐거워하는 존재다(31절). 다시 말해 지혜는 창조의 동역자로서 ‘사람의 아들들’(מְבָנֵי אָדָם/베네 아담, 곧 ‘인류’와 유대관계를 맺으며 기뻐한다. 브라운은 지혜 그녀는 충만하게 살며 서로 돕고 하나님과 세상과 상호작용하면서 그 역할에 있어 “하나님의 완벽한 파트너”라고 했다.<sup>40</sup> 여기에 한 문장을 덧붙이겠다. 지혜는 인간의 완벽한 파트너다. 왜냐하면 이곳 말도고 고대 이스라엘의 지혜 정신은, 지혜가 즐거움의 길이요, 그녀의 모든 길은 ‘샬롬’(잠 3:17)이라고 밝히기 때문이다. 샬롬(שָׁלוֹם)은 구약에서 번영, 성공, 완전함, 편안함, 복지, 구원의 의미까지 포함한다(사 48:18; 창 37:4, 14; 삼상 7:14; 왕상 2:33 등).<sup>41</sup> 전쟁이나 분쟁이 그친 ‘평화’의 의미로 충분하지 않다. 샬롬은 부족함이 없는 상태 곧 완벽한 상태이며 태평성대가 실현된 상태를 함축한다. 요컨대 여성 지혜는 인류에게 즐거움과 복지의 원천이며, 인류 복지를 위한 동역자다. 따라서 지혜는 하나님과 인간의 완벽한 파트너다.

또한 지혜는 불멸의 존재다. 잠언의 지혜자는 ‘지혜 그녀를 꼭 붙든

38 ‘에첼’(옆에)와 ‘에제르’(돕는 자) 연결은 발음의 유사성을 생각한 것인데 다소 억지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다. 그렇더라도 최초 인류 커플의 친밀성과 동등함을 창조자 하나님 옆에 있는 지혜와의 관계적 측면을 고려하면 두 어휘 연결은 충분히 가능하다.

39 Brown, “Proverbs 8:2-31”, 287.

40 윗글, 288.

41 HALOT 8624.

자에게 생명나무이고, 그녀를 차지하는 자들은 행복하다'라고 말한다(3:18). '생명나무'(**עץ החיים**/에츠-하이임)는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기 전 이미 에덴 정원에 있었다. 생명나무의 기능은 인류 최초 커플이 타락한 이후에야 그 존재의 의미가 밝혀졌지만, 인류가 '영원히 살아 있게' 하는 존재로 묘사되었다(창 3:22). 하나님은 '그 사람'(**האדם**/하이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처럼' 되었으니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하게 될까 염려하면서 '그 사람'을 에덴동산에서 쫓아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덴 동쪽에 천상의 존재와 불 갈을 두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다(3:22-24). 그때 인류는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생명나무에서 분리되어 영원불멸의 기회를 잃었다.<sup>42</sup> 그러나 잠언에서 지혜는 영원불멸의 기회를 부여하는 존재로서 위치성을 확보하고 찬미 받는다. 왜냐하면 '지혜는 생명나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잠언에서 지혜는 '생명나무' 은유를 통해 죽음의 저주를 피해 영원한 생명, 즉 불멸의 존재로서 그 위치성을 차지하고 있다. 한마디로 지혜는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창조자'(아몬)이고 동시에 인류의 '지복'(샬롬)을 책임지는 불멸의 동역자다.

## (2) 도(道), 온갖 것의 어머니

그러면 도덕경의 도와 구약 지혜의 '같음'은 무엇인가?<sup>43</sup> 도덕경 1장과 6장에서 도는 모든 것을 낳고, 덕은 모든 것을 기른다는 점에서 도

42 R. Marcus, "The Tree of Life in the Book of Proverbs,"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62 (1943): 117-20; H. N. Wallace, "Tree of Knowledge and Tree of Life," *Anchor Bible Dictionary* 6, 658-60을 참조. 생명나무에 대한 언급은 외경 일부와 계시록 2:7과 22:2, 14, 19에서 발견된다. 에스겔 47:12에서 모든 종류의 열매 맺는 나무들이 생명나무와 연결된다.

43 '다름'을 통해 '같음'의 의미가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혜와 도 사이의 '차이'를 밝히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지만, 지면의 한계상 별도의 논의로 삼겠다.

의 여성적 특성이 그려진다. 도는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그 무엇이며 하늘과 땅의 시원으로서, 온갖 것의 어머니며 신비 중의 신비다.

‘도’라고 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닙니다.  
이름 지을 수 있는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 붙일 수 없는 그 무엇이 하늘과 땅의 시원.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온갖 것의 어머니(도덕경 1장)<sup>44</sup>  
계곡의 신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비의 여인.  
여인의 문은 하늘과 땅의 근원.  
끊길 듯하면서도 이어지고,  
써도 써도 다할 줄 모릅니다(도덕경 제6장).<sup>45</sup>

도덕경 1장과 6장에서 도의 특징이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도는 온갖 것의 어머니다. 도는 우주 만물의 근원으로서 어머니와 ‘여성’(牝/빈) 성을 드러낸다. 도는 하늘과 땅의 시원, 온갖 것들의 어머니, 신비의 여인(玄牝/현빈), 여인의 문이다. 그리고 “여인의 문”이 하늘과 땅의 근원으로 선언되어 ‘도’의 여성성이 강조된다. 이에 대해 소준섭은 “도는 만사만물이 시작되는 기점이자 마침표로서의 종점”이라고 해설

44 노자, 『도덕경』 제1장, 오강남 번역, 19. 道可道 非常道 名可名 非常名(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無名 天地之始 有名 萬物之母(무명 천지시지 유명 만물지모)

45 노자, 『도덕경』 제6장, 오강남 번역, 43. 谷神不死 是謂玄牝(곡신불사 시위현빈) 玄牝之門 是謂天地根(현빈지문 시위천지근) 綿綿若存(면면약존) 用之不動(용지불근) 여기서 “신비의 여인”으로 번역된 玄牝(현빈), 谷神(곡신), 母(모), 谷(곡)은 노자가 사용하는 특수한 여성성 개념이다. 이밖에 牝牡(빈모), 雌雄(자웅) 등은 동물에 사용하는 개념이지만 인간과 만물 모두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은 김영규, “노자(老子)의 여성성(女性性) 은유”, 193-195를 보라. 연구자는 “여인”으로 번역한 단어를 ‘여성’으로 바꾸고 싶지만, 번역자의 언어는 그의 세계를 반영하기에 있는 그대로 인용했다.

했다.<sup>46</sup> 즉, 그 무엇도 도를 앞서지 않는다는 것이고, 천지보다 앞서 생겨난 생명의 원천이라는 뜻이다. 도덕경 6장에서 도는 계곡의 신과 여인의 문으로 비유되어 만물을 낳고 그침이 없는 존재다. 이는 마치 잠언 8장에서 지혜가 만물보다 먼저 태어나 야웨 ‘옆에서’ 야웨의 창조 행위에 참여한 것과 같다. 말하자면 있음과 없음이 지혜의 시작과 영원인 것처럼(잠 8:22-23) 일체의 양극으로 드러나는 것이 도이다. 한마디로 지혜가 생명나무로서 영원불멸과 관계된 존재인 것처럼(잠 3:18; 참조. 창 3:22), 도는 소멸하지 않고 영원무궁하다.

둘째, 도는 조화의 지극함이다. 김영규는 여성을 뜻하는 ‘빈’(妣)이 남성을 배척하고 여성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을 아우르는 포월(包越)의 의미로서 조화의 지극함이라고 보았다.<sup>47</sup> 이것은 “세상 만사에는 시작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의 어머니”(52장)<sup>48</sup>라는 노자의 말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다시 말해 천하 만물의 성장과 발육은 하나의 근원을 지니는데, 존재의 근원으로서 도를 어머니로 비유했다. 이러한 도의 특성에서 여성적인 것이 신격화되지만 이것은 “지배자의 억압이나 강제를 느끼지 못하는 통치 상태”를 의미한다.<sup>49</sup> 이와 같은 특성이 세계의 생성과 관련되며, 도덕경 51장에서 도는 ‘모든 것을 낳는’ 모든 존재의 근원으로 소개되고 있다.<sup>50</sup> 따라서 잠언 8장에서 모든 피조물보다 가장 먼저 창조된 지혜가 야웨 옆에서 창조자로 활동한 것처럼, 지혜와 도

46 노자, 『도덕경』 소준섭 풀이, 24.

47 김영규, “노자(老子)의 여성성(女性性) 은유”, 197.

48 天下有始 以爲天下母(천하유시 이위천하모)

49 김중순, “노자(老子)에 있어서 도(道)의 절대성과 여성성”, 36.

50 도(道)는 모든 것을 낳고/덕(德)은 모든 것을 기르고/물(物)은 모든 것을 풀지우고/세(世)는 모든 것을 완성시킵니다... 그러므로 도가 모든 것을 낳고/덕이 모든 것을 기르고, 자라게 하고/양육하고, 감싸주고, 실하게 하고, 먹여 주고, 덮어 줍니다... 후략... (도덕경 51장)

는 모든 존재의 근원, 있음과 없음의 시작이며 끝이다.

## 2) 완전한 무엇으로서 지혜와 도

도덕경 25장은 천지가 창조된 태초보다 더 이전에 ‘무엇’(物)이 있었다고 한다. 태초보다 더 이전의 ‘무엇’은 무질서 또는 혼돈의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의 근원으로서 잠재적으로 포괄하는 분화되지 않은 무엇이다.<sup>51</sup> 그것이 도이다.

분화되지 않은 완전한 무엇,  
하늘과 땅보다 먼저 있었습니다.  
소리도 없고 형체도 없고,  
무엇에 의존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두루 편만하여 계속 움직이나 [없어질] 위험이 없습니다.  
가히 세상의 어머니라 하겠습니까.  
나는 그 이름을 모릅니다.  
그저 ‘도’라 불러 봅니다.  
구태여 형용하라 하면 ‘크다大’라고 하겠습니까.  
크다고 하는 것은 끝없이 뻗어 간다는 것,  
끝없이 뻗어 간다는 것은 멀리멀리 나가는 것,  
멀리멀리 나간다는 것은 되돌아가는 것입니다.<sup>52</sup>  
(도덕경 25장 중에서)

51 노자, 『도덕경』 제25장, 오강남 풀이, 124.

52 윗글, 124-25. 25장 전체는 다음과 같다. 有物混成 先天地生(유물혼성 선천지생). 寂兮寥兮(적혜료혜)! 獨立不改 周行而不殆 可以爲天下母(독립불개 주행이불태 가이위천하모). 莫不知其名 強字之曰道 強爲之名曰大(오부지기명 강자지왈도 강위지명왈대). 大曰逝 逝曰遠 遠曰返(대왈서 서왈원 원왈반). 故道大 天大 地大 人亦大(고도대 천대 지대 인역대). 域中有四大(역중유사대), 而人居其一焉(이인거기일언). 인법지 지법천 천법도 도법자연(인法地 地法天 天法道 道法自然).

도덕경 25장은 도의 존재와 윤행을 논한다.<sup>53</sup> 첫째, 도는 하늘과 땅이 있기 전에 이미 먼저 존재했다. 따라서 ‘도’는 이름을 붙이거나 정의 내릴 수 없고 사물들이 나타나기 이전의 미분화 상태인 초월적인 시원이다. 이렇게 도는 개별적인 무엇의 근본이기 때문에 소리도 형체도 없는 존재로서 변하지 않는다. 오강남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항존한다’는 뜻으로 해석했고, 두루 편만하여 어디서나 역동적으로 작용하되 변화의 근원이지만 그 자체로 변하거나 없어지지 않는 무엇으로 보았다.<sup>54</sup> 말하자면 현실 세계의 모든 만물은 상대적으로 존재하지만 오로지 ‘도’만 절대적으로 존재하며, 독립적이고, 유일무이하고, 소실되지 않는다는 뜻이다.<sup>55</sup>

둘째, 도는 ‘어머니’로 비유되어 생명의 근원이자 모든 것의 양육자다. 셋째, 도는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무엇’이다. 그저 ‘크다’(大)라는 말로 형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무엇이 큰 것인가? 소준섭은 우주에 큰 것, 넷을 지목했다. 하늘, 땅, 도, 그리고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은 대지를 본받고(人法地), 대지는 하늘을 본받고(地法天), 하늘은 도를 본받고(天法道),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道法自然).<sup>56</sup> 여기서 ‘자연’(自然)이란, 문자적으로 ‘스스로 그러함’이다. 따라서 자연을 본받는다는 것은 ‘스스로 그렇게 존재한다’는 뜻이다.<sup>57</sup> 결국 자연과 모든 위대함의 근원에 도가 있다.

지혜 역시 만물보다 먼저 존재했다. 지혜가 태초에, 영원부터, 만물이 생기기 이전에 존재했고, 야웨 옆에서 ‘창조자’로서 활동한 것처럼

53 노자, 『도덕경』 제25장, 소준섭 풀이, 96.

54 노자, 『도덕경』 제25장, 오강남 풀이, 125.

55 노자, 『도덕경』 제25장, 소준섭 풀이, 96.

56 노자, 율글, 95.

57 노자, 『도덕경』 제25장, 오강남 풀이, 126.

(8:22-30) 창조자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를 넘나드는 존재다. 다시 말해 지혜는 아웨 옆에서 만물을 짜임새 있고 아름답게 조성하는 모든 창조물의 근원이며 동시에 항상 존재하여 초월성을 지니지만, 동시에 창조세계 안에 머물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내재성을 지녔다. 여성 지혜는 인격화되어 인류와 공존 공생하는 존재이면서 영원에서 비롯된 창조자로서 신격화된 존재다(27-30절). 무엇보다 지혜의 영원성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신성의 하나로서 중단 없는 현재성과 완전성을 공유한다. 따라서 지혜는 만물 창조 이전의 완전한 무엇으로서 소리도 형체도 없이 하늘과 땅보다 먼저 존재하여 항존하는 도와 닮았다.

## 5. 지혜와 도의 여성성 이미지와 교차적 함의

### 1) 신성에 깃든 여성성의 원리

지혜와 도의 핵심적인 공통점은 만물의 시원으로서 여성 이미지를 갖는다. 앞서 밝힌 것처럼 잠언 8장의 지혜는 스스로 아웨 옆에 있는 ‘창조자’로서, 아웨의 아내처럼 신성한 동역자로서 여신 이미지를 드러냈다. 여신 이미지는 세계 종교에 등장하여 창조의 신격을 갖추고 다산성과 우주적 풍요를 결합한다. 마찬가지로 도는 그 무엇으로도 의존하지 않는 형체도 없고, 변하지도 않고, 두루 편만하여 세상의 어머니로 비유되었다(도덕경 25장). 이것은 위대한 어머니 여신의 상징성과 연결되곤 했다. 로즈마리 류터(Rosemary R. Ruether)는 이미 오래전에 신과 인간, 하늘과 땅, 인간과 비인격적인 존재들에 이르는 모든 만물을 표현하는 상징을 여신 개념으로 상징했다.<sup>58</sup> 최수빈 역시 고대로부터 여러 문

58 로즈마리 R. 류터, 『성차별과 신학』 (안상님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5), 56-

화 전통에서 여성은 다산과 풍요를 의미했고, 생리, 임신,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생물학적인 특징과 기능인 우주의 순환 원리와 일치하는 것으로 여겨 성스럽게 생각했다.<sup>59</sup> 사실상 대자연을 ‘어머니 자연’(Mother Nature)이라고 말하듯, 고대인들은 자연 전체를 여성적인 것으로 인식한 셈이다.

물론 잠언의 여성 지혜와 도를 여신 개념으로 일치시킬 수는 없다. 그렇더라도 여성 지혜가 야웨 ‘옆에 있는’ ‘창조자’를 칠십인역이 ‘아내’처럼 번역한 것은 아마 22절 ‘카나’ 동사의 쓰임(참고. 창4:1; 14:19)과 외경〈지혜서〉8장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지혜서는 지혜가 하나님과 동거하고, 전능하신 야웨가 그녀를 사랑했고 자기의 고귀한 태생을 빛냈다고 한다(8:3). 이러한 이유로 “나는 지혜를 맞아들여 함께 살기로 작정하였다”(8:9,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성경』)라고 노래한다. 민영진은 하나님과 지혜의 ‘동거’ 개념에 대한 뚜렷한 본문 중 하나로 〈지혜서〉 본문을 꼽았다. 이때 ‘동거’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심비오시스’(συνβίωσις)는 부부관계를 함축한다. 즉 지혜를 하나님의 아내처럼 보이게 했다.<sup>60</sup> 그리스-로마의 다신론과 황제 숭배에 저항하며 야웨 신앙과 오경을 변증했던 필론(Philo of Alexandria) 역시 하나님은 삼라만상

57. 원제는 Rosemary Radford Ruether, *Sexism and God-Talk : Toward a Feminist Theology* (Boston: Beacon Pres, 1983). 류터는 신적 존재에 대한 인간이 근원적인 이미지를 모든 만물이 발생하여 나오는 거대한 자궁으로 표현했다. 류터는 여성주의 신학(feminism theology)을 말하면서 내놓을 수 없는 미국인 카톨릭 여성 신학자로서 페미니스트 신학 분야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59. 최수빈, “《老子道德經》을 통해 조명해 본 ‘여성 해방’”, 『도교문화연구』 11 (2005): 29-61. 특히 46-56쪽은 도에 대한 어머니, 암컷, 물, 골짜기, 계곡, 텅빔 등으로 상징화되는 것을 깊이 다루고 있다.

60. 민영진, “히브리인들에게 여신이 있었는가?-지혜, 세키나, 성령으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여성성”, 『기독교사상』 52(8) (2008): 118-127. 특히, 122. 탈무드 학자들은 미드라쉬 설교에서 하나님을 남성/여성 혹은 양성으로 비교하는 것을 회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리스어로 기록된 지혜서 8장 3, 9절 모두 ‘심비오시스’(συνβίωσις), 곧 ‘동거’를 뜻하는 목적격 여성 명사(συνβίωσιν)로 쓰였다.



의 아버지로서 삼라만상을 탄생시킨 분이고, 지혜의 남편으로서 사멸하는 종족 인류를 위해 행복의 씨앗을 뿌리는 분이라고 했다.<sup>61</sup> 물론 이것을 이스라엘의 여신(女神) 개념 확립으로 볼 수는 없다. 이영미의 지적처럼, 구약성서에는 여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없다. 여신숭배가 민간신앙 차원에서 숭배된 흔적을 보여주는 청동기 후기 유물들이 존재하지만, 아웨 한 분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언약 신학 때문에 여신의 존재를 내세울 자리가 없다.<sup>62</sup>

그러나 구약의 잠언이 여신의 부재를 여성 지혜 이미지로 드러낸 셈이다. 잠언 8장이 보여주듯 하나님의 창조 활동에서 지혜 없이 창조는 없다. 지혜의 기원이 아웨에게 의존하지만, 여성 지혜는 아웨 ‘옆에서’ 예술성을 겸비한 ‘창조자’로서 다른 피조물과 완벽한 질적 차이를 보인다(잠 8:22-30). 이처럼 신성을 겸비한 지혜의 여성적 원리와 이미지가 잠언에서는 아웨 옆에서 아내처럼 창조를 돕는 또 다른 ‘창조자’로, 도덕경에서는 도가 계곡의 신, 현묘한 암컷, 하늘과 땅의 어머니로 활동한다.

중국 철학사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발견되었다. 김중순에 따르면 노자 시대(주전6-5세기?) 이전에는 ‘신’(神) 개념을 천(天)이나 상제(上帝)로 여겼지만, 도(道) 개념이 등장하면서 중국 사상에 근본적인 변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신성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한 것

61 필로, 『알렉산드리아의 필론 작품집 I』 한국연구재단총서 634 (문우일 옮김), (서울: 아카넷, 2022), 340. 원제는 Philo of Alexandria, *Philonis Alexandrini opera quae Supersunt* vol.1, Edited by: Leopold Cohn and Paul Wendland (Berlin: Typis et impensis G. Reimerii, 1896-1915). 필로의 표현에는 처녀성에 대한 가부장성이 적혀져 있지만, 하나님과 지혜의 관계에 대한 당시의 이해에 빛을 제공한다. 필로는 “하나님을 처녀의 남편이라고 하지 않고 처녀성의 남편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처녀는 변하고 사멸하지만, 처녀성은 영원히 같은 상태로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62 이영미, “여성의 눈으로 다시 읽는 구약성서의 하나님,” 『구약논단』 19(3) (2013): 178-205.

이다.<sup>63</sup> 또한 ‘도는 만물을 낳는다’는 음과 양의 조화 사상은(도덕경 42장) 대립이 아닌 조화와 통일로 해석되었다.<sup>64</sup> 이것은 류터가 ‘어머니-아버지 하나님’을 통해 존재의 근원으로서 양성 신을 성서의 전통으로 제시한 것과 닮았다.<sup>65</sup>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식을 잊지 못하는 것먹이 어머니로 비유되었듯이(사 49:14-15; 참조. 신 32:10-11, 18) 하나님이 특정한 하나의 성으로만 표현되지 않았다.<sup>66</sup> 물론 지혜와 도의 여성적 이미지와 성격을 근거로 성급하게 둘을 같은 존재로 일치시킬 수는 없지만, 지혜와 도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여성성 확장을 무단히 탐구하도록 과제를 남겼다.

## 2) 가부장제를 초월하는 상생의 원리로서 지혜와 도의 여성성

이상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다. 야웨 옆에 나란히 창조의 동역자로 존재하는 지혜의 여신 이미지는 기독교 신학에 어떤 힘과 가능성을 제공하는가? 여성 이미지의 신을 상상하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데 어떤 자극제가 될 수 있는가? 전통적으로 가부장적인 남성 신의 형상을 강조하여 여성을 ‘하나님 형상’으로부터 소외시켰다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는 사실이다. 따라서 지혜와 도의 여성성은 가부장주의 한계를 극복하고, 총체적 인간성을 향상하면서

63 김중순, “노자(노자)에 있어서 도(도)의 절대성과 여성성”, 『젠더와 문화』 2(2) (2009): 31.

64 최수빈, “《老子道惠經》을 통해 조명해 본 ‘여성해방’”, 40.

65 류터, 『성차별과 신학』, 79. ‘어머니-아버지 하나님’(Mother-Father God)라는 포괄적인 용어는 류터가 말하기 100년 전에 메리 에디(Mary B. Eddy)가 언급한 것이며, 신적 존재에 대한 부모 모델은 부정적인 반향을 불러오기도 했다.

66 Ibid. . 무엇보다 잠언 8장은 신화적이거나 이스라엘이나 이방 신들로부터 비롯되었다는 논쟁이 있었고, 페미니스트 신학과 여신숭배 사상에 밑그림을 그리는 데 도움이 되기도 했다. 이 논쟁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Garrett, *Proverbs, Ecclesiastes, Song of Songs*, 110-113을 참고하라.

모든 영역에서 모든 종류의 맹목성과 배타성을 넘어서게 한다. 이것은 단지 인간사회만이 아니라 동식물 같은 다른 존재들을 격하시키는 인간중심주의 폐해를 극복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어떤 측면에서 가능한가? 여성으로 인격화되고 신격화된 지혜는 가부장적인 하나님 이미지와 역할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성찰의 길을 열어준다. 구약의 야웨 신앙이 남성적인 유일신 사상에 견고한 뿌리를 두고 있지만, 여성 지혜에 대한 다양한 은유와 상징 속에서, 우리는 여성성의 생명력과 신비를 사유하도록 안내받는다.

첫째, 조상들로부터 전수되는 고대 이스라엘 지혜 전통은(4:1-4) 지혜를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찬미한다. 아버지는 자기 아들에게 여성 지혜를 연인이나 평생의 동반자를 구하는 것처럼 찾으라고 권고한다(4:6-9).

그녀를 떠나지 말라. 그녀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녀를 사랑하라. 그녀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6절).

지혜가 으뜸이다. 지혜를 사라.

너의 모든 재산으로 명철을 사라(7절).

그녀를 높여라. 그녀가 너를 높일 것이다.

네가 그녀를 포옹할 때 그녀는 너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8절).

그녀가 너의 머리에 은혜의 화관을 둘 것이고,

그녀가 너에게 아름다운 면류관을 넘겨줄 것이다(9절).

이스라엘의 지혜자들은 지혜를 사랑하는 연인처럼 구하고 찾아야 할 대상으로 여기면서 성애적 표현까지 동원했다.<sup>67</sup> 지혜는 사랑하고, 높이고, 껴안아야 할 존재로 인격화되었고(6, 8절), 지혜를 사랑하면 ‘은

---

67 Roland E. Murphy, "Wisdom and Eros in Proverbs", *CBQ* 50 (1988), 600-603.

혜의 화관'과 '아름다운 관'으로 보답할 것이라는 사유 체계가 지혜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

둘째, 지혜를 추구하는 자가 지혜를 얻는다. 1인칭으로 인격화한 '나'(אני/아니) 지혜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찾으면 만나게 되고, 자신의 사랑을 얻을 것이라고 말한다. 지혜는 자신을 부귀와 재물을 얻는 통로처럼 소개하고, 동시에 공의로운 길을 걷는 존재로 소개한다(8:17-21). 또 여성 지혜는 시끄러운 길거리, 성문 어귀에서 나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외친다. 그녀는 오직 자기 말을 듣는 자는 재앙 없이 두려움 없이 안전한 삶을 얻을 것이라 약속한다(1:20-33). 셋째, 여성 지혜는 "설교하고, 조언하고, 가르치고, 예언하는 시인"이다.<sup>68</sup> 지혜는 "거리의 복음 전도자이자, 예언자"<sup>69</sup>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성 지혜는 흔히 남성들의 세계로 불리고 남성이 주도하는 공공의 장소, 성문에 나타나 사람들을 부르고 명령한다. 지혜는 생명이 지혜 자신 안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1:20-23, 33). 이렇게 지혜는 신적 권위를 지닌 존재처럼 곳곳에서 사람들을 교훈한다.

넷째, 지혜는 일곱 기둥으로 세운 웅장하고 완벽한 집을 짓고 사람들을 초대하여 음식을 제공하면서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고 초청하는 인격적인 존재다(9:1-7; 참고. 3:18). 흥미롭게 이것을 구체화하려는 듯한 시가 잠언 마지막 장에 있다. 이른바 '능력 있는 여성'(אִשָּׁה חַיִּיל-נְאֻמָּה/에셀-하일)을 칭송하는 시다(31:10-31).<sup>70</sup> 이 시는 가정의 울타리를

68 Phyllis Trible, "Wisdom Builds a Poem: The Architecture of Proverbs 1:20-33,"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94(1975): 509.

69 Tremper Longman III, *Proverbs*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6), 111.

70 리차드 클리포드(Richard Clifford)는 "능력 있는 아내를 향한 찬가"(Hymn to the Capable Wife)라는 제목을 붙였다. 왜냐하면 이 시의 구조가 찬가와 비슷하고, 직접적으로 마지막 시행 첫 마디는 '그리고 그녀를 찬양합시다'(31:31, 비할루하, וַיְהַלְלוּהָ)로 끝난다. Richard J. Clifford, *Proverbs*, The Old Testament Library (London: Westminster John Knox, 1999), 271, 273 참고.

넘어 더 큰 현실 세계에서 탁월함을 발휘하는 여성성을 통해 지혜의 이상성을 표현했다. 이러한 여성 지혜에 대한 일련의 묘사에서 보듯 신격화되거나 인격화된 지혜의 목소리는 성적으로 도구화된 고대의 여성 역할 개념과 고정된 위치성을 해체한다. 머피는 이 부분을 “여성을 성애적으로만 찬양하는 것을 비판하는 내용”<sup>71</sup>으로 보았다. 이처럼 여성 지혜에 대한 찬양은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가부장적인 신앙의 한계를 극복하고 여성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길을 터놓는다.

일부 학자들은 여성 지혜를 수메르나 바빌로니아의 초기 도시 문명에서 발견되는 신적 존재의 여성적 이미지와 어떤 연결점을 밝혀보려고 했지만, 이것은 또 다른 연구 영역이다.<sup>72</sup> 머피는 성서 계시의 언어가 야웨에 대한 남성화의 한계를 피할 수 없어도 지혜는 가부장 제도나 여성주의 어느 쪽에 의해서도 희생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sup>73</sup> 그러나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친 특정 젠더 편향의 세계에서 지혜의 여성성은 가부장적인 사회와 종교 시스템의 해독제로서 기능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지혜의 성격은 하나님에 대한 여성성 이해 확장을 위한 자료로서 부족하지 않다.

도덕경에는 도에 대한 여성성을 찬미하는 문장들로 넘쳐난다. 그러면 도의 여성성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 사회에 어떤 기능을 했는가? 첫째, 만사만물의 평화와 평등성의 기초다. 오강남은 ‘도’가 남성적인 특성을 신과 결부시켜 신을 승리자나 정복자 등으로 생각하게 했던 중

71 머피, 『잠언』, 394.

72 고대 근동 세계에서 두 가지의 핵심적인 신화는 신과 여신을 서로 연결하는 것인데, 그 뿌리를 주장하기 위해 수메르 문명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수메리아의 이난나-도무지, 가나안의 안나쓰-바알, 이집트의 이시스-오리시스 등의 형태로 계속 등장한다. 이처럼 고대 근동 세계는 여성에 대한 역사 이전의 신화와 밀착되어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는 로즈마리 류터 이후로 이미 많이 진행되었고, 이 논문의 초점이 아니기 때문에 논외로 한다.

73 머피, 『잠언』, 448.

래의 의식과 고정관념을 청산하고 재구성할 필요성을 부여한 것이라고 풀이했다.<sup>74</sup> 최수빈은 동양의 정신적 전통 중에는 도의 철학을 바탕으로 우주와 자연에 만물의 평등적 가치와 상호 수용적 태도를 강조하여 대립과 차별을 극복한다고 보았다.<sup>75</sup>

둘째, 위계와 인위를 거부하는 부드러움과 포용성의 근거다. 김영규는 노자가 지녔던 도에 대한 여성성 개념이 낮춤과 수용성, 포월성, 포용성, 관대함, 조화로움, 고요함, 그리고 생명이라는 철학적 의미를 담아낸다고 보았다.<sup>76</sup> 가장 최근에 이현철은 노자가 도를 주창한 것이 유가의 남성 질서에 대한 편협성과 인위성에 대한 비판의식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는 유가의 통치 이념인 ‘인의예지’가 가부장적 도덕 정치가 도리어 백성들에게 거짓된 행동과 교묘한 술수라고 여겨졌기 때문이라는 노자의 생각에 근거한다.<sup>77</sup> 예컨대, 앞서 제시한 도덕경 1장에서 도는 하늘과 땅의 시원, 만물의 어머니지만, 6장에서 도는 씨도 씨도 다 함이 없는 계곡의 신으로서 자신의 현재 위치보다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의 원리를 반영한다. 따라서 이현철은 남성과 여성의 구분을 초월하는 초월성 내세워 도를 표상하는 여성성이 남성을 배제하는 독단의 세계관이 아니라 상이함을 포용하는 관계 정립에 강조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물의 성질이 그릇의 모양에 따라 자신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고, 자신을 막아서는 것을 향해 돌파하지 않고, 돌아서 흐르는 부드러움

74 노자, 『도덕경』 오강남 풀이, 46.

75 최수빈, “《老子道德經》을 통해 조명해본 ‘여성 해방’”, 『도교문화연구』 11 (2005): 29-61.

76 김영규, “노자(老子)의 여성성(女性性) 은유”, 212.

77 이현철, “노자(老子)의 물(水)에 관한 연구: 페미니즘을 중심으로”, 『철학연구』 152 (2019): 181-206. 이현철은 도의 여성성이 주창된 시기는 춘추전국시대였고, 주나라의 예법과 제도가 붕괴하고 혼란한 사회였던 점에 주목한다.

때문이다.<sup>78</sup> 즉 도는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의 성질을 반영하며, 부드럽고 약한 것으로서 그 약함이 강함을 이기는 역설 그 자체다. 요약하면, 여성 지혜가 하나님 창조의 동역자이자 창조자로서 대상화된 여성성과 남성 중심성을 해체하여 상생의 길을 열어젖히듯 도의 여성성은 어머니로서의 부드러움을 장착한 유연한 신성의 조화로움으로 만물의 평등을 구축한다.

## 6. 나오는 말

구약 지혜문학을 대표하는 잠언의 핵심은 지혜이고, 노자의 도덕경은 도이다. 두 사상은 진리의 우주적 성격과 여성성으로 집약된다. 먼저, 지혜와 도의 접점인 우주적 성격의 특징은 만물의 시원이자 영원성에 있다. 지혜는 모든 만물보다 ‘맨 처음’ 창조되고, 영원에서 생겨났지만, 야웨 ‘옆에서’ 그의 창조 사역을 돕는 ‘창조자’다. 여성 지혜는 창조되었으나 ‘창조자’로서 이중의 정체성을 지닌다. 여성 지혜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만물의 시원으로서 영원성과 창조성을 겸비한 인격화되고 신격화된 존재다. 지혜는 ‘창조자’로서 야웨 옆에서 기쁨이 되고 동시에 인류의 기쁨이다(8:30-31). 지혜는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고 인류의 ‘살림’을 책임지는 불멸의 동역자다. 마찬가지로 도덕경에 묘사된 도는 우주 만물의 근원으로서 ‘하늘과 땅의 시원’, ‘온갖 것의 어머니’, ‘신비의 여인’(玄牝/현빈), ‘여인의 문’이다. 도는 소리도 형체도 없지만 항존하는 생명의 근원으로서 완전하다. 도는 만물의 근원으로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완전한 ‘무엇’이다. 이처럼 지혜와 도는 시간을 초월하는 영원으로

---

78 윗글, 200-201.

존재한다.

그리고 지혜와 도의 점점인 여성성의 특징은 여성적인 원리를 발현하는 신적 존재처럼 기능한다. 잠언의 여성 지혜와 도를 여신 개념과 일치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도는 형체도 없고, 변하지도 않고, 두루 편만하여 생명을 키우는 어머니에 비유되듯 지혜는 아웨 ‘옆에서’ 동거하는 아내의 이미지다. 이것은 하나님을 남성 신으로 대표될 수 없도록 신의 여성성을 보충하고,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를 초월하는 상생의 원리를 제시한다. 아웨 옆에서 ‘동거하는’ 창조자로서 신격화된 지혜는(8:30) 하나님을 가부장적인 위계 구조와 종교 시스템에 가두었던 인습을 타파하여 신성이 내재된 여성성 이해의 발판이 된다. 동시에 여성으로 인격화된 지혜가 연인처럼 사랑할 존재로(4:6-9), 거리의 예언자처럼 사람들을 훈계하는 목소리로(1:20-33), 능력 있는 여성으로 인격화되듯(31:10-31), 도의 여성성은 남성적인 신과 결부된 승리자나 정복자 개념이 아닌 수용과 관대함, 조화와 아름다움, 생명과 평등의 가치를 통해 다름을 포용하는 관계로 확장한다.

그러므로 구약 잠언의 지혜와 도덕경의 도는 우주 만물의 근원이며 태곳적 시간부터 영원까지 다함 없이 지금도 인류와 공존하는 존재이며 완전한 무엇이다. 그리고 지혜와 도의 여성성은 젠더 불균형 문제만이 아니라 인간중심주의를 정당화하는 시스템을 재고하고 조정하고 필요에 따라 해체하는 유용한 관점을 제공한다. 둘은 각기 다른 문화와 전통에서 길어 올린 정신이지만 젠더 평등은 물론 만물의 평등과 관용 정신을 펼치는 상생의 원리다. 무엇보다 두 사상의 만남은 삶의 진리와 교훈의 보편성과 조화를 발견하는 사유 활동으로서 융합적이고 포용적인 사고 확장에 공헌하며 닫힌 신학이 아닌 열린 신학의 길을 터준다. 이것은 기독교 신학의 본질을 가리지 않고 지혜 신학의 지평을 넓혀 세상과 소통하는 열린 신학을 위한 또 하나의 길이다.



## 참고문헌

- 강민경, “도교문학에 나타난 생태 여성주의”, 『도교문화연구』 47 (2017): 139-165.
- 김갑수, “도가사상의 페미니즘적 전망”, 『시대와 철학』 18권2호 (2007): 7-47.
- 김영규, “노자(老子)의 여성성(女性性) 은유에 대한 철학적 분석”, 『신학전망』 175 (2011): 187-215.
- 김정우, “잠언 8장 22-31절에 나타난 지혜의 성격과 창조에 있어서 그의 역할에 대한 번역적 고찰”, 『성서원문연구』 24 (2009): 7-23.
- 김중순, “노자(老子)에 있어서 도(道)의 절대성과 여성성”, 『젠더와 문화』 2권2호 (2009): 31-55.
- 노자, 『도덕경』 (소준섭 옮김), (서울: 현대지성, 2022)
- 노자, 『도덕경』 (오강남 옮김), (서울: 현암사, 2015)
- 로즈마리 R. 류터, 『성차별과 신학』 (안상남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5).  
원제 Ruether, Rosemary Radford., *Sexism and God-Talk : Toward a Feminist Theology* (Boston: Beacon Pres, 1983).
- 롤랜드 E. 머피, 『잠언』 Word Biblical Commentary 22 (박문재 옮김), (서울: 솔로몬, 2001). 원제 Murphy, Roland E., *Proverbs*, Word Biblical Commentary: Vol. 22 (Grand Rapids: Zondervan, 1998).
- 민영진, “히브리인들에게 여신이 있었는가?: 지혜, 세키나, 성령으로 대변되는 여성성”, 『기독교사상』 52(8) (2008): 118-127.
- 안근조, “잠언의 의인화된 지혜여성: 그 수사학적 기능과 신학적 의미”, 『구약논단』 79 (2021): 131-165.
- 이권, “노자의 여성성”, 『한국여성철학』 창간호 (2001): 31-52.
- 이영미, “여성의 눈으로 다시 읽는 구약성서의 하나님”, 『구약논단』 19(3) (2013): 178-205.
- 이종근, “함무라비 법전과 잠언 8장의 연관성에 대한 고찰: 천상회의를 중심으로”, 『구약논단』 23(1) (2017): 190-233.
- 이종위, “도덕경에 나타나는 여성성의 생명력과 특징들”, 『생명연구』 32집 (2014): 59-88
- 이현철, “노자(老子)의 물(水)에 관한 연구: 페미니즘을 중심으로”, 『철학연구』 152 (2019): 181-206.
- 임채우, “원시 도가의 여성주의 사상”, 『도교문화연구』 18 (2003): 181-210.
- 정세근, “여성주의와 노자철학”, 『대동철학』 66호 (2014): 183-203.
- 제임스 크렌쇼, 『구약 지혜문학의 이해』 (강성열 옮김) (서울: 한국장로교출판

- 사, 2002). 원제 Crenshaw, James L., *Old Testament Wisdom*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8).
- 최수빈, “《老子道德經》을 통해 조명해본 ‘여성 해방’”, 『도교문화연구』 11 (2995): 29-61.
- 필론, 『알렉산드리아의 필론 작품집 I』 한국연구재단총서 634 (문우일 옮김), (서울: 아카넷, 2022). 원제 Philo of Alexandria, *Philonis Alexandrini opera quae Supersunt* vol.1, Edited by: Leopold Cohn and Paul Wendland (Berlin: Typis et impensis G. Reimerii, 1896-1915).
- Barrett, Michael P. “Wisdom: Person or Personification? Thoughts on Proverbs 8,” *Puritan Reformed Journal* 8, 1 (2016): 5-12.
- Brown, William P. “Wisdom’s Wonder: Proverbs, Paideia, and Play,” 2010년 9월 23일 North Park Theological Seminary에서 개최한 Lils W. Lund 기념 강연 에세이.
- Camp, Claudia V. *Wisdom and the Feminine in the Book of Proverbs*. Sheffield: Almond, 1985.
- Clifford, Richard J. *Proverbs*, The Old Testament Library. London: Westminster John Knox, 1999).
- Garrett, Duane A. *Proverbs Ecclesiastes Song of Songs*, The New American Commentary (Nashville: Broadman Press, 1994).
- Lenzi, Allen. “Proverbs 8:22-31: Three Perspectives on Its Composition,” *JBL* 125 (2006): 687-714.
- Longman III, Tremper. *Proverbs*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6).
- Murphy, Roland E. “Wisdom and Eros in Proverbs,” *Catholic Biblical Quarterly* 50 (1988): 600-603.
- Newsome, Carol. “Woman and the Discourse of Patriarchal Wisdom: A Study of Proverbs 1-9,” Peggy L. Day, ed., *Gender and Difference in Ancient Israel*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9).
- Perdue, Leo. *Wisdom and Creation: The Theology of Wisdom Literature* (Nashville: Abingdon, 1994).
- Shupak, Nili. “Female Imagery in Proverbs 1-9 in the Light of Egyptian Sources,” *Vetus Testamentum* 61 (2011): 310-323.
- Trible, Phyllis. “Wisdom Builds a Poem: The Architecture of Proverbs 1:20-33,”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94 (1975): 509-518.
- Waltke, Bruce K. *The Book of Proverbs: chapters 1-15*,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2004).

Webster, Jane S. "Sophia: Engendering wisdom in Proverbs, Ben Sira, and the Wisdom of Solomon,"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78 (1998): 63-79.

검색어

잠언, 도덕경, 도, 지혜, 여성성, 젠더

[ ABSTRACT ]

## A Comparison of the Femininity of Lady Wisdom of Proverbs in the Old Testament and Dao of Daodejing

Soon-Young Kim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This paper conducts a comparative study between the concept of 'wisdom' in the book of Proverbs and the fundamental concept of 'Dao' in Eastern classics, specifically the Dao De Jing (or, Tao Te Ching). The study aims to achieve two main objectives. First, it delves into the interdisciplinary integration between the personification of wisdom as a divine and female figure in Proverbs 8, representing the wisdom tradition of ancient Israel, and the concept of Dao as elucidated in the philosophy of Laozi, a prominent philosopher during the Warring States period in ancient China. Second, it contributes to a broadened comprehension of femininity that bridges the gap between the ancient and modern worlds, promoting holistic cosmological perspectives and integrative thinking.

Especially, Proverbs 8:22-31 serves as the zenith of the feminine wisdom discourse in the Old Testament, captivating readers for centuries, from ancient philosophers to feminists and ecologists. In this passage and related wisdom sections, wisdom is personified as a female entity, depicted as the source of earthly happiness and a benefactor. Similarly, selected passages from the Dao De Jing (Chapters 1, 6, 25, 51, 61) depict the Dao as the ultimate and complete source of heaven and earth, often metaphorically described as the mother of all things, with a central focus on femininity. Thus, it can be argued that Lady Wisdom and the Dao

www.kci.go.kr

performed the task of overturning the male-centric gender biases prevalent in the ancient world.

These two concepts can be considered as the foundational core of Eastern contemplation on femininity, which has existed long before the emergence of Western feminist movements. Furthermore, both Wisdom and the Tao are perceived as timeless, foundational forces in the universe, coexisting eternally alongside humanity as comprehensive entities. Therefore, the convergence of these two philosophical traditions offers an alternative path towards the expansion of integrative and inclusive thinking. It represents a cognitive effort to explore life's truths and teachings produced in diverse historical and sociocultural contexts. This journey seeks universality and harmony, embodying an open theology rather than a closed one.

key words

Proverbs, Dao De Jing, wisdom, Dao, femininity, gender

투고일: 2023년 01월 02일

심사일: 2024년 01월 17일

게재 확정일: 2024년 02월 03일

www.kci.go.kr